

『17년도 G밸리 패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사업기획 자문회의 회의록

회의일시	2017. 03. 17(금) 15:00~17:00		장소	현대아울렛 6층 시민청	작성자	홍성엽
참석자	운영위원	윤창섭, 한상국, 박경목, 박진순, 정지숙, 최병훈, 심귀섭, 박근혜, 주재영, 유민석, 한인숙 <11명 참석>				
	재단	이해수(수석), 오진실, 홍성엽, < 3명 >				

보고안건 **전문가 자문**

- < 결 정 사 항 >
1. 공간 계획시 현재 공간이 쇼핑몰 이라는 것을 감안 공간 계획이 필요
 2. 센터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센터의 목적과 역할이 중요함(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님)
 3. 편집숍 및 비즈니스가 가능한 공간이 필요
 4. 포토스튜디오(촬영실)운영을 통한 활성화 필요

- **이해수수석** : 금일 G밸리패션지원센터 사업기획 자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야별 전문위원님 및 지역 협의체와 관계기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본 센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코자 하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홍성엽선임** : 본 센터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류제조산업의 비전제시와 편집숍, 촬영 스튜디오, 비즈니스 룸을 함께 운영 예정이며 지역 협의체 및 해당 공간이 쇼핑공간에 있으며 센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들을 더욱 강화하여 특화된 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 **심귀섭위원** : 봉제(의류제조산업의 지역 특성 고려가 필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합니다. 해당 시설의 차별화 시도는 좋으나 자금 투입대비 성과도 생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시설을 편집숍 형태의 변화를 통해 봉제업체의 의류제품 홍보라는 개념은 좋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분기별 행사와 사업 진행이 뒤따라 져야 하고 현재 3명의 인력으로는 버거울 수 있으며, 기관이라는 특성상 성과를 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의 사업 담당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해당 지역 시설 담당자라 해서 꼭 고생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협의체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며, 해당 담당자만 분명히 동분서주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 **최병훈위원** : 현재 동대문에서 진행 하는 사업들 모두가 수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 전년도 수주박람회 담당자분도 계시지만 지난연도 상당히 고민하고 고민하여 사업을 만들어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성과에 있어 많은 의류제조업체에 전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1/4에 해당하는 업체만 성과를 냈고 도움이 되었지만, 해당 사업담당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재단도 장소만 만들고 돈을 집행하는 데만 주력하지 일감을 연계하고 업체를 홍보하는 데는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해당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하여 업무적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의 스튜디오도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은 있지만, 해당 지역의 시설은 편집숍 형태의 비즈니스 공간운영이라는 것은 맞다고 여겨집니다.
- **윤창섭위원** : 방문객이 어떤 사람인지? (업체, 디자이너, 일반시민)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정확하다고 여겨지며, 방문객을 유도하고 그들이 머무르게 하는 방법에 있어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숍을 전진 배치하고 촬영 스튜디오, 비전 전시공간, 비즈니스 룸 운영 등으로 규모를 작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 **최병훈위원** : 구매자들이 많이 와서 사가는 편일까요? 의류 외에 패션 잡화 및 디자인제품들도 함께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확대운영도 재단에서는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 **홍성엽선임** : 해당 사안에 대해 고민은 했지만 주 초점은 의류제품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바람도 있어 재단의 애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시와도 협의하였지만 국한했으면 하는 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 **박근혜위원** : F/W, S/S 두 번으로 나누어 편집숍 운영이 좋을 것 같고 소장으로는 해당 시설이 적합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현대아울렛 협력을 통한 광고 및 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촬영 스튜디오 공간은 좋으나, 회의실 공간은 축소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টে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 **정지숙위원** : 운영 방법이나 시스템 구축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테스트 용도로만 하지 말고 지역적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튜디오가 가장 바람직하면 스튜디오에 힘을 줘야 합니다. (포인트를 줘라) 지금은 포인트가 미약에 굳이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스튜디오 전문가가 필요하며. 사진작가, 룩북 기획자, 모델, 카피 라이터 등 전문가 상주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스튜디오 장소만 있다고 해서 활용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콘텐츠를 만들긴 했다. 하지만 콘텐츠를 누가 홍보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콘텐츠를 만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노출할 것인지 효과를 어떻게 낼 건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봉제업체들은 홍보도 원한다.

***포인트를 잡고 홍보 부분을 강화한다면 특색이 있을 것 같다.**

- **최병훈위원** :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이 부족하다 여겨집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장은 중요하다. 전시 공간운영과 스튜디오를 살려서 룩북을 만들어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B to C를 강화하고 B to B를 두어 향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하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진순위원 : 업체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들을 듣고 수용한 것으로 생각하며 제가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조사한 바도 재단에서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 홍성엽담당 : 실제로 봉제업체들의 건의 사항은 전시홍보 공간 부족, 기술력 부족, 센터를 통해 일감연계 및 홍보 부분이었습니다. G밸리는 IT로 유명하니 이 부분을 융합하여 봉제업체들에 비전을 제시하고 신기술 제품들을 선보이는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술력 인증, 전시공간 부족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습니다.**

□ 주재영담당 : G밸리의 목적이 무엇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줘야 합니다. 이 공간의 특성상 B to C로 시작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천구청에서 G밸리워크 네트워크가 있으므로 도와줘야 합니다. 어려운 봉제 인들을 도와준다는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점은 B to C 방향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 박경목위원 :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면 전시공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수주까지 이어주는 건 상당히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 담당자의 엄청난 노력과 인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담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

□ 박근혜위원 :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무조건 무상으로 해달라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이니 공공의 본질은 잊지 않되 실질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실은 지원공간으로 바꾸되 축소운영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지원센터냐 마케팅센터냐 정확하지 않다.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 윤창섭위원 : 의류제조업체 지원 입장이라면 부스 활용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B to C에 더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아마도 수출 쪽이라면 더 좋고요.

□ 주재영담당 : 사업을 B to B로 운영하면 실적이 없을 수 있으니 재단에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근혜위원 : 르돔은 고급스럽게 되어있어 비싸다는 선입관이 있다.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 방문객이 없습니다. 고급스러운 것보다 친근함이 느껴지는 활용도 높은 전시실로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비싸 보여 발길조차 끊기는 개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 봉제공장의 협업 아이디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유민석팀장 :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너무 좁게 개념을 잡는 건 위험하다 여겨집니다. 무조건 돈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업체들이 모두 오긴 한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만 갈 순 없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회의실은 상담실로 작게 하고 시민청 공간을 이용해서 회의실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재단에서 정말 많이 고민해 주셨고 저 안이라고 하면 좋은 센터로 자리매김 할 것 같아 안심됩니다. 역시 재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이해수수석 : 금일 자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안해 주시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체참석자 :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일동)잘 되리라 봅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짹!짹!짹!

끝.』